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60〉

戒互用之罪 (계호용지죄) ②

智大驚曰 公居此山 院宇一新
지대경왈 공거차산 원우일신
道風遐播
도풍원파

지선사 크게 놀라 이르기를 그대가 이 산에 머물적에 절을 일신(중창불사)하고 도풍이 멀리까지 퍼져

意期四禪 不足處之 云何若是
의비사선 부족처지 운하약시
曰我 修道二十年
왈아 수도이십년

뜻으로는 사선(색계의 네하늘(모두 18천)에 나게되는 힘을 가진 선정)이 아니면 족히 처하지 않을 것이어늘 어찌하여 이와같은가.
수옹이 가로되, 저는 20년간 수도하면서

不互用化士供僧之物
불호용화사공승지물
後造僧堂 互用僧供 猶未塡說
후조승당 호용승공 유미진설
화주의 삼보공양물을 서로 어긋 쓰지 않았더니 뒤에 승당을 지음에 삼보공양물을 어긋 나누어 쓰고 아직도 채워놓지 못하여

受苦至此
수고지차

即爲塡說 無何 至死
즉위진설 무하 지사
嘗以破簏 盛檀越名目
상이파롱 성단월명목
置車司過閣上
치고사압각상

곧 베풀고자하는 뜻을 일렀으나 얼마 안되어 죽게 된지라 못하였는데
일찍이 깨진 바구니에 보시주 명목을 적어서 창고 다락 어두운 곳에 두었으니

今幸存焉
금행존언
翌日 集衆 詣車司 覈目 果在
익일 집중 예고사 장목 과재
唱賣衣鉢及僧堂
창매의발급승당

다행히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날 대중을 모으고 창고에 들어가니 장목이 과연 있었다.
의발과 승당을 팔아

遂爲塡說 五年及足
수위진설 오년급족
後夢 顯來謝
후몽 옹 래사
賴師之力 幸免獄苦
뢰사지력 행면옥고
퇴사지력 행면옥고

드디어 대중에게 베푸니 5년에 마쳤다.

"삼보공양물을 어긋나게 나눠쓴 고통 대중공양 원만할때 면할 수 있습니다"

智曰何方使 可免
지왈작하방편 가면
顯曰望以慈悲 回賣僧堂
옹왈망이자비 회매승당

(이렇게) 고통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였다.
지선사 이르되, 무슨 방편을 지어야 그통을 면할 수 있는가 하였다.
수옹이 이르되, 바라옵건대 자비로써 승당을 되팔아

塡還衆供
진원중공
智曰淺久之事 以何爲憑
지왈천구지사 이하위빙
曰當時 意謂修造畢功
왈당시 의위수조필공
대중공양을 원만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였다.
지선사 가로되 아주 오래된 일인데 무엇으로써 증빙 할 것인가.
수옹이 이르되, 당시에 승당을 지어마치고

得生人中 三生後 復爲僧
득생인중 삼생후 부위승
以此覈之 用僧供物
이차관지 용승공물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났으니 삼년후에 다시 중이 될것입니다 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삼보공양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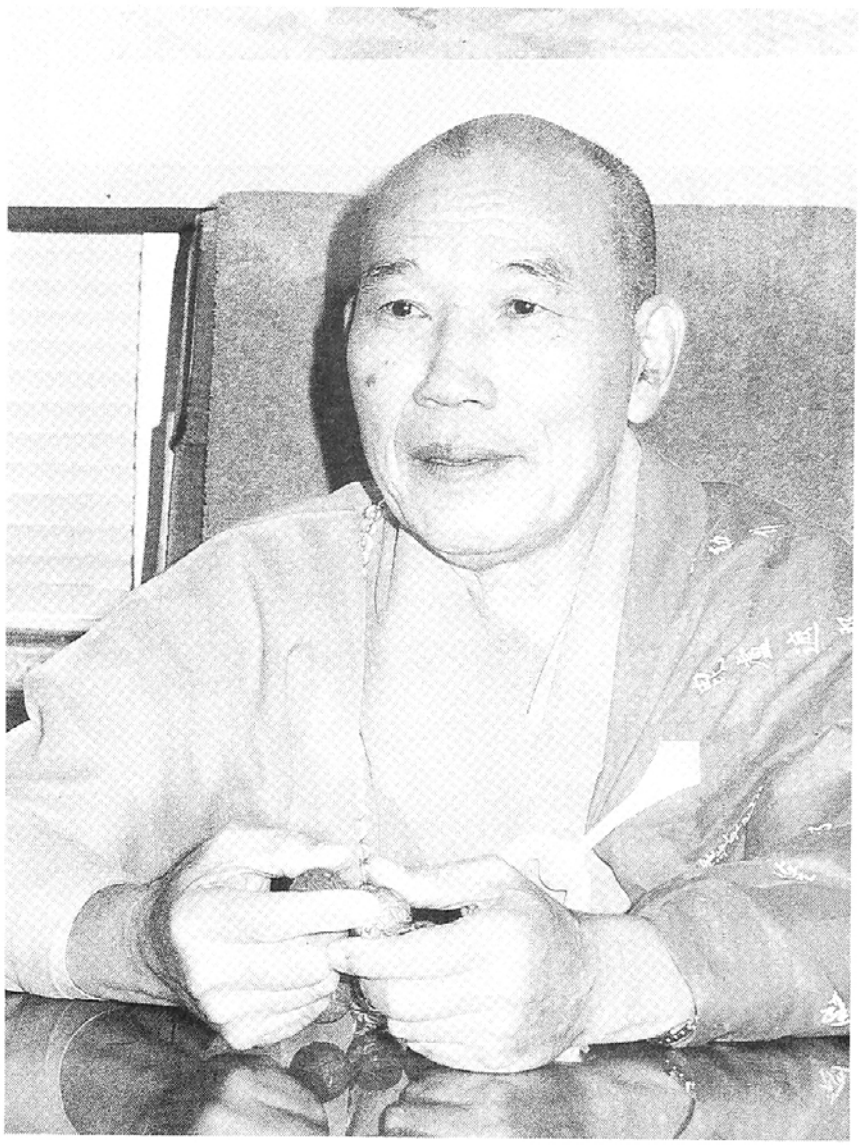
造僧房屋
조승방옥
願還不及 尙受此報
원환불급 상수차보
當今覆無因果者 互用財利
당금발무인과자 호용재리
승방짓는데 쓰고
반환키로 원했다가 이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도 오히려 이런 과보를 받거늘
오늘날 인과는 없다고 하는사람이 있고 재물을 서로 어긋쓰고 **龍眼**

그후 꿈에 수옹이 나타나 감사하기를 선사의 힘에 의지해 다행히 지옥고를 면하고

★ 지상법석

"탐욕은 모든 악의 근원

일화스님 〈법륜종 종정〉



약력
- 27년 충남 공주 生
- 40년 마곡사에서 금담스님 은사로 득도
- 45년 마곡사 대교과 졸업
- 49년 대전 공립공업 중 교사
- 88년 법륜종 창종, 총무원장
- 91년 법륜종 종정 취임

보라,
모든 것은 지금 이글이글 타고있다.
눈(眼)이 타고 있다. 눈에 비치는 현상들이 타고있다.
그 현상을 인식하는 생각도 타고있다.
눈으로 보아서 생기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타고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인해 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 노여움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인해서
모두 이글이글 타고 있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을 바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리라.
애착이 없어지면 그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최고의 안락을 누릴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탐욕은 모든 악의 근원이고 번뇌와 망상의 씨앗임을 일깨우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욕망의 절제, 이것이야말로 수행하는 스님들뿐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어려운 숙

"우리는 제동장치 없는 차를 타고 있습니다 위험을 알고 극복하려면 집착·번뇌 벗으려는 원력을 세워 합니다"

제가 아닐런지요. 어딘지도 모를 곳에서 들끓어 오르는 욕망이란 이름의 그 무엇이 오늘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욕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지 하는 것,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기어이 하고야 말게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욕망이 부리는 조화가 아닐까 싶은데 욕망이란 놈의 본래 모습은 알 길이 없군요.
욕망은 탐욕이 부르는 허상의 모습입니다. 뚜렷한 목적이나 분명한 이유도 없이 그저 탐내는 마음이 욕망인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욕망으로 타오르고 있는 불구덩이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노여움과 어리석음이 덩달아 춤을 추어대니 이 세상은 참으로 한심지경입니다.
제동장치도 없이 내달리는 전동차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위험천만합니다. 탐욕의 세상은 이와같이 우리의 삶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천만의 전동차에 올라탄 중생이지만 언제나 튼튼하고 안전한 전동차를 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욕망의 전동차 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헛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탄 전동차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것을 벗어날 토대를 만든 것이지만 그 자체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계속 타고 간다는 것이니까요. 그러고 보니 욕망보다 더 무서운 놈이 헛된 것에 대한 믿음이군요.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허상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게 믿으려 하지않고 그것이 허상인 줄도 모르는 어리석음까지도 믿음을 삼는 것이 무명 중생의 한계일 것입니다.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라고 우겨대는 것과 다를것이 없겠습니다.
허상의 믿음에 대한 집착은 어리석은 삶의 연속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불자들도 무상(無常)을 늘 얘기 하면서도 집착해서 안될 것에까지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이란 단순히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본질을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계의 모든 것은 변화해 갑니다. 나고 성하고 멸하는 것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것이 이대로 영원할 것이라 믿는 것이 무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어리석음이거든요. 우리는 이 현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도 내가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무상의 노정에 서 있는 것이란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게 되고 그 집착과 분별심으로 인해 우리는 탐욕의 마음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일지라도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어떤 인연에 의하여 나와 잠시 만난 것일뿐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영원한 나의 소유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헤어져야 합니다. 나와의

신개발품 전통사찰 지붕의 美를 되살린 가람 銅기와

귀의 삼보하옵고
손끝에 물들은 분홍빛 연잎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이 목전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국민적 축제 행사에 여념없으신 사부대중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가람동기와에서는 다년간의 기술 개발로 품격을 향상시키고 전통사찰지붕의 美를 되살린 가람동기와 신개발품을 생산하여 시공, A/S를 책임지고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 제위의 관심있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불기 2540년 5월
가람동기와 대표 이주영 합장

가람 동기와의 장점 및 특성
1. 반 영구적인 기와입니다
—겨울철 눈과 한파로 인한 동파가 발생하지 않고 풍우로 인한 흙의 흘러내림 (지붕의 이물질, 잡초의 뿌리, 이끼등)으로 인한 지붕의 변형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완벽한 방수가 가능합니다.
—암기와 숫기와는 비, 바람, 물의 역류를 막을수 있게 설계 제작되어 누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물의 목재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3. 운반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평당 기와의 중량이 45kg으로 가볍고 암기와 숫기와는 30장씩(1평당 소요량) BOX로 포장되어 운반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4. 동기와의 색상변화
—동기와는 다른 금속에서 볼수 없는 특유의 색상변화를 일으켜 최초의 색상은 적등색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색창연한 멋을 더해주게 됩니다.
5. 시공이 간편합니다.
—내수 합판을 사용하여 지붕에 덧집을 짓고 아스팔트 펠트(25kg이상)를 깔은후 동기와를 조립하여 시공하며 신축의 경우 서까래위에 송판(이다)을 깔은후 단열재를 이용하여 단열을 한후 내수합판으로 덧집을 짓고 동기와를 조립 시공한다.

가람 동기와 설계. 제작. 시공단계
동기와제작 → 시공설계 → 직접시공 → 시공감리 → 하자보수및 10년간 A/S
가람동기와에서 전부분 공정을 대리점 하청없이 제작, 설계, 시공을 본사가 직접하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감소합니다.
동기와불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02)720-512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하여 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4-40 청송B/D 202호
가람동기와 ☎ (02) 720 - 5121